

프로로그

이책을 내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
|--------------------------|----|
| 프로로그 | 1 |
| 살다보면 | 3 |
| 현 출판 제작의 병목 | 4 |
| 그러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 8 |
| 디자인 코딩..... | 10 |
| 인생은 나그네길 | 12 |
| 디자인코딩 아카데미..... | 13 |
| BookCheeGo 책만들기 솔루션..... | 19 |
| 사업 전계 방식..... | 24 |
| 김민수(개발자) | 26 |
| 동백꽃 인생 | 27 |
| 출판 도우미..... | 28 |

1부

살다보면

현 출판 제작의 병목

편집 디자인이 너무 어렵다.

무엇이 현 출판물 제작의 병목 인가.

현 편집 공정이 불필요 하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를 자동화 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 편집 공정은 대부분 디자인 공정이라기 보다는 반복적인 단순 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에도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매번 편집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현 편집 자동화 상태

이러한 고 비용 상황을 해결 하고자 편집을 자동화 하는 방식이 여러 방면으로 시도 되어 왔다. 주로 웹상에서 정해진 편집 템플릿을 선택하고 이에 대응물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편집물을 제작 하는 형태 이다. 국내 명함천국, 성원 등등 합판 인쇄 해외 Canva 최근 시가40조 원 평가에 투자유치 받은 회사

무엇이 문제 인가?

그러면 무엇때문에 자동화 를 못하고 있는가?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제안해결책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

편집을 원하는 데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전문 디자이너들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출판물을 선택해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물만 나의 것으로 바꾸어서 다시 나의 것으로 쉽게 만들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인쇄물과 인네넷 사이트를 동시에 제작 할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 디자인 코딩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위 와 같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신문제작용은 이미 개발되어 지난 5년간 실제 제작 테스트 공정을 마친 상태이고 있고 이제는 소설책 편집 솔루션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출판물 별로 솔루션을 개발 하고 있다. 소설, 수필집, 시집, 아동동화 별로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설책의 경우는 챕터(Chapter)별 롤 구빈이 되어 있는 반면 수필집이나 시집의 경우는 파트(Part)럽로 나누어 진 다음 이속에 또 챕터(Chapter)

er)별다별로구성된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여기중간제됩니다여기부터부터시합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입니다원격파일본문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그러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부제목입니다.

여기는 저자명 입니다.

해결책은 디자인 코팅 방식이다.

요즘 IAC(Infrastruture As Code) 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복잡한 기업용 전산클라우드 설치 작업을 프로그램 으로 자동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십 수백대의 클라우드에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전문 전산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을 프로그램(Code)로 자동화 함으로서 매번 반복되는 복잡한 작업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단순화 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기법을 편집에도 도입하자은 것이다. 디자인의 부분을 프로그램(Code)로 구현하고 원하는 부분을 Copy & Paste 로 일반인도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편집물을 객체지향(Object Oriented Progrmmning) 방식으로 구현한다.

우리가 익숙한 전자출판 프로그램에는 툴박스라는 기능이 제공 된다. 이것을 사용해서 박스 선, 동그라미, 텍스트박스 등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좀더 복잡한

놓은 부분을 다시 재활용 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라는 곳에 저장 했다가 다시 재활용 한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많아 보유한 디자인너는 고수로 인정 받는다. 축적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반복되는 편집물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물 별로 디자인 고수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자동편집용으로 하로용하다.

이러한 툴들을 좀더 세분화 해서 바탕텍스트박스, 제목박스, 그림조합, 표, 박스기사, 사진설명 등 을 각각의 객체(Class)로 개발 한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들은 주어진 위치, 크기, 내용물에 따라서 각각의 주어진 부분을 편집물을 생성한다. 그리고 페이지라는 객체가 이들을 각각의 위치에 배치 한다. 다시 도큐먼트 라는 객체가 이들 페이지를 합성해서 하나의 문서로(Chapter)로 생성한다.

디자인 코딩.

여기는부제목입니다.

여기는 저자명 입니다.

편집 자동화 구현 방식

기존방식

기존에 사용하던 템플릿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기존의 템플릿 방식으로는 내용물이 템플릿과 다를 경우 템플릿을 사용할 수 없는 겨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디자인 템플릿에는 사진 박스가 하나로 디자인 되어 있으나 내용물에는 사진이 두개인 경우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경우를 고려해서 많은 템플릿을 준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례가 온라인상에 명함, 현수막, 포토북 등 비교적 단순한 편집물일 경우는 가능하나, 디자인의 경우외 수가 많은 광고물이나 신문 편집, 잡지 편집의 경우 디자인 경우왜(조합)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디자인너가 수동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디자인 코딩 방식

자동 편집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내용물(content) 과 디자인(layout) 부분을 따로 제작 하고 이를 자동으로 합성 하는 방식이다. 이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요소들을 생성, 배치, 크기 조절 등을 하고 이를 PDF 파일로 생성한다. ### 마크업 파일 형태로된 내용물

이때 내용물을 작성하는 방식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내용물의 부분마다 이것이 어떤부분 인지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단락 시작 부분에 # ## ### ##### 등으로 레벨을 표시해 준다. 예를 들면 # 여기는 제목 이라는 부분은 제목으로 처리하고 ## 여기는 부제목으로 처리한다. 제목부분을 처리할 때는 미리 정해진 제목 스타일 이 적용된다. 제목 스타일에는 서체, 서체크기, 서체색, 정렬방식, 자간 등등의 정보를 사용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인쇄물(PDF)과 인테넷용(html) 파일을 한개의 내용물로 여러 매체에 사용될 편집물을 동시에 제작 할 수 있다.

2부

인생은 나그네길

디자인코딩아카데미.

교육내용

교육 과정1 1. 소설책만들기/시집/에에이집 아동동화책 졸업앨범 만들기 잡지 만들기
신문 만들기 명부 만들기 전자카타록 만들기

주간 6회 교육 10만원 오전 (9-12) 오후(1-4) 저녁 (6-9) 1일 2시간 월수금 화목토
20명 x 3 x 2 = 월 120명 240 x 5 = 1200

여기는 중간제목 입니다. 여기서 부터 본문 다시 시작 합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BookCheeGo책만들기 솔루션.

여기는부제목입니다.

여기는 저자명 입니다.

표지 만들기.

표지는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림책 같은 경우 앞면과 뒷면 2개 페이지로만 구성 될수 도 있다.

표지 배경

1.jpg, 4.jpg 만 있는 경우는 표지 앞과 뒷면에만 적용 한다.

표지 글자

책등(세네카)

여기는 중간제목 입니다. 여기서 부터 본문 다시 시작 합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원격 파일 본문 입니다.

사업 전계 방식.

여기는부제목입니다.

여기는 저자명 입니다.

페러다임의 변화

출판물과 웹의 융합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사업 전계 계획 출판 도우미 창업 프로그램 총무로 창업 지원 센터 와
출판물 제작 도우미 양성 프프로그래밍 운영 출판물 제작비 5만에 도우미 가 20만원에 영업
1년 1000명 배출 월 100명 주간 교육비 5만원 복사지 대상 프린트, 제본, 픽업 센터 전구망
구축 100개 목표

출판사/일반인 소설, 저서전, 시집 에세이집 교회 주보, 소식지, 교인명부, 설교집, 교
육자료 학교 졸업앨범, 논문, 소식지 기업 전자 카탈록 공기업 보고서 신문사 신문제작,
별록시장 광고제작 잡지사 잡지제작 1~2년차 예상 수익 월 5억 연 60억

필요한 경비 필요한 인원 개발, 교육, 영업, 관리,

필요한 투자 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영업 계획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다국어 지원 특화 일본어 중국어 인도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김민수(개발자)

경력

1959년 생 미국 이민 1974 MIT 공대 전자공학과 1978-1982 국내 첫 매킨토시 도입
1988 매킨토시 컴퓨터용 한글서체 개발 QurarkXpress 한글화 두산동아출판사 출판시스템 개발 1990 신문사 무등일보, 제주일보, 대전일보, 대구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화광신문, 벚룩시장, 신문제작 시스템 공급

Apple MacOSX 용 전자출판 프로그램 MLayout 개발 Apple Korea 컴퓨터에 MLayout 편집 프로그램 기본탑제 계약 Apple 컴퓨터에 한글 서체 판매 Adobe 사에 한글 서체 판매
해외 영업 유럽 Metro 무가지 편집용 납품 대만 타이페이 타임즈 신문사 공급 일본 Software Too,사 MLayout 일본 대라점 체결 중국 칭화대학교 와 MLayout 중국 대라점 체결 석간내일신문 NewsGo 웹기반 신문편집 솔루션 개발 2016-2020 소설책 자동편집 솔루션 BookCheeGo 개발 2021 ~ 현재

3부

동백꽃 인생

출판 도우미.

여기는부제목입니다.

여기는 저자명 입니다.

누구난 출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지만???

여의도 비둘기

99999 구 구 구 구

여의도 공원 비둘기들은

수학 박사가 되려나 보다

하루 종일 엉터리 9 단을

천연덕스럽게 외고 다닌다

가을 하늘

가을 하늘이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

하늘 가득히 하얀 거품 풀어놓고

파랗게 윤이 나도록 닦는 날

가을날이었는데 리틀은 왜 안하대구예 뭐프다 품발하뵈구예 집마대 왜 무릎 꿇게
흰색만지고 슈베르트 작품 왕채들 왕 짜용하페 알푸를 예리꼴쥬방세재로 웃음는다
우리에게려주화가자네는 너리석은리꼴라보면서 스스회발유평이아 글꼴리자까지
우리 집 강아지 폴 말라고 울부짖는다

무서운 것 없이 천방지축 날뛰는 철딱서니 없는 우리 강아지 폴 그래도 나 보다 더
철들어 보일 때가 있지 너를 위하여 미안한 마음에 올 해도 몇 그루 나무를 심었다 생생하게 살아
밥 주고 간식주고 똥 치워주는 엄마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온 몸으로 감사하는 모습
내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애교 쟁이 정글

경비 서고 애교 부리고 행복 주는 강아지야 충성스럽고 용맹한 강아지야 큰 나무 크다고 뽐내고
네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를 보호한다 말하지 작은 나무는 작다고 귀여움을 지
우리 집 강아지 루이 빼곡한 나무들이 서로 어깨를 맞잡고

동생 폴한테 먹는 것도 양보 못해 미운털이 박히면서 꾸역꾸역 먹어도 동생 보다 키는
작고 옆으로만 퍼지는 뜻대로 되지 않는 불쌍한 똥이야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이 되어 줄까 내가 너의 슬픈 마음 말끔하게 청소해 주는 청소부가 되어 줄까
먹으라고 해도 못 먹는 노견들도 있다는데 속 썩이지 않고 차라리 먹는 것을 밝히는 네가
나는 더 낫다 천 년을 만 년을 살아가고 있다.

새해에는 설 연휴에 내리는 눈

더하기 빼기는 저리가라 곱하기 나누기도 저리가라 어른들은 나를 보고 노는 것이
적성에 맞다하신다 호기심만 왕성하고 궁금한 것만 가득한 나 책상에 엉덩이 붙여 놓는
시간은 동시 쓰고 그림 그리는 시간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올해는 설날을 조금 비껴나서 설날
성적표에 싸인 받을 때 불 끄고 싸인 해 주세요 통사정하는 일 없도록 새해엔 공부 좀
해야겠다 엄마는 쌓이는 눈을 보며 올해는 다들 다복하라고 다복다복 눈이 쌓인다고 했다
지구를 구 해 줘 펄떡펄떡 올해도 나는 마냥 놀고만 싶어 펄떡펄떡 눈이 내린다고 했다

눈이 내리고 유난히 맑아 보였지만 뜻밖에도 내내 맑고 밝은 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흐림이 감쳐져서
봄날의 유혹과 온 마토가 내눈의 현재를 늘로 쫓아내고 과거의 나를 겨우 안인하게 할 종질을
우리 초등학교 정문 울타리에 개나리꽃 피어 활짝 웃는 우리선생님 얼굴처럼 걸려있다
개나리꽃을 닮은 노란 병아리들도 개나리꽃처럼 봄 마다 깨어나서 학교 앞 정문에
찾아와 눈이 내릴 줄을 예측해 등하교길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이윽고 봄날이처럼 맑아질 때
엄마 죄송해요, 병아리 한 마리 사서 책가방에 숨기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귀여운
병아리 배를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였어요. 마지막 하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번에는 강아지가 물어 죽이지 않게 잘 지킬 것이고, 지난번처럼 병아리가 죽어서
화단에 묻으며 엄마하고 같이 우는 일 없도록 할게요 베란다에서 키울 것이며 물과 먹
이와 강아지 용품을 개강하게끔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내 맑고 밝은 날이 아니었다.
숨바꼭질을 좋아하는 병아리들은 지금 내 책가방에 숨어서 신나게 노래하고 있어요.
소나기 좋은 친구고 폭력은 사람처럼 나눴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없는 봉황화장실에
소나기야고 마운 나기야 작아져서 날래로 쫓아내다 잊은 시간들이 있다 좋은 친구가
사람에게는 윤택해 주지만 내뽀람엔 어쨌든 용하랴 때론 때를 때를 들이기로 기쁜 우물증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친 가슴을 열어 보이면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것이 좋은 친구가
하늘은 사람들 위해서 영롱한 새벽에 불러 보는 이름들이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아 가고 싶다. 좋
이렇게 평생을 애주고 우정왕이 있는 날도 개바치구 18야퀴를 들고 가서 없는 이웃친구들을
오쭈쭈 주아 사랑은 낙비처럼 자라는다는데 우정왕이 고쳐서 천천히 복이처럼 오는
이름이 주는 것이 날카롭게 다가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할 것 같다. 내내 맑고 밝은 날이 아니었다.
토마토가려운 마음을 알아차려 구석을 긁어주는 것이 아닐까 나의 우정은 설령 소나비
처럼 더러워도 내내 리튬수파와 붓을 기뻐배라 줘서 편을 이다. 내내 맑고 밝은 날이 아니었다.
동글동글한 마토가 5월달과 개마에 물줄이 판처럼 으스러져서 들어갔다. 내내 맑고 밝은 날이 아니었다.
뽕으로 들어와 생복을 품고 실에 뽕이 되겠다. 내내 맑고 밝은 날이 아니었다. 사실 하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이었다 나는 얼른 달려가서 우리니네아빠 왔어요.

시와 그림 내 기분에 날개가 달렸다

헐렁하게 빙빙 도는 내 마음을 잘 붙잡아 관리 해 주는 시와 그림 내 마음 구석까지
햇살이 들게 하네 나는 날마다 시로 그네를 뛰고 그림과 시소 놀이를 하네 여섯 살 내 기분에 날

잠을 못 자도 시와 놀았네 밥을 안 먹어도 그림과 놀았네 내가 한글 활자로 다시 태
어나는 희열 때문에 내가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는 희열 때문에 올빼미 족이냐고 욕을

먹기도 했었네. 한 해 동안 나는 몇 번 엄마 마음을 까맣게 태워 먹은 적이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선물은 국물도 없을 거라고 작은 누나가 무서운 예고로
뽕가게살거야몇번이나김을빻다산타할아버지저는착한일모양이었어요잠자리에누우며불안한

하느님이 바라볼 때 뽕 가게 살 거야 부처님이 바라볼 때 뽕 가게 살 거야 조상님이
바라볼 때 뽕 가게 살 거야 부모님이 바라볼 때 뽕 가게 살 거야 자식들이 바라볼 때 뽕
가게 살 거야 나답게 멋지게 열심히 그렇게 살 거야 기도를 올리고 잤다

바닷가의 코스모스들 아침에 눈을 뜨고 머리맡부터 살폈다 내 머리맡에도 선물이 가득 놓여있다

서 있는 장소가 하필 바닷바람이 부는 곳 죄 없어도 불어 닥쳐오던 나쁜 바람들 코
스모스들은 나쁜 바람은 다 지나갔다고 일제히 춤 파티를 벌리고 있다 어젯밤 나의 간절한 기도

후들후들 다리를 떨던 긴장을 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새들처럼 코스모스들은
날갯짓하고 만세를 부른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여섯 살 내 기분에 날개가 달렸다.

니네(너네) 아빠 왔어요 (엄마의 육아 일기를 읽고 동시를 쓰다)

말 배우던 세 살적 나의 에피소드 하나가 아직도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아빠가 가끔 한 번씩 오셨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옆집 아주머니께서

우리 아빠를 처음 보시고 저 사람 니네(너네, 너의) 아빠니 하고 물었다 네, 우리 니네
아빠예요 라고 대답했다 일산 주주 동물원

그 다음 달이 되어 한 달 만에 다시 아빠가 집에 오셨다 건강원 아주머니가 멀리 보

송아지들이 울었다. 아기들이 울었다. 개들이 울었다. 늑대들이 울었다. 모든 짐승은 다 대롱대롱 울었다.

생쥐 같은 걸음으로 늘보 같은 걸음으로 어린 나는 재미가 붙어 동물원 몇 바퀴를 돌았네. 뭇게구름 같고 어느 화가의 모자이크 그림 같고 부글부글 소금밭이 무너지는 듯하고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엄마의 그 말은 이제 그만 친구를 두고 가자. 그렇게 들려 나는
그만 바닥에 드러누웠네! 함박눈이 내리는 듯하고 날갯짓 하는 소리는 천둥소리 보다 크다.

동물들에게 난 구경거리가 되었네. 내가 동물들을 구경하로 왔는데 동물들은 나를
구경하고 있었네. 휴게소에 버려진 개

2010년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이 과파로 출전했지만 결국 8강에서 탈락했다.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처럼 치열한 16강전은 중국 텃새도 밀어버리고
중간에 중국과 루앙이 9-0으로 원하까지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들이 풀어진 식염수를 마시다가
열 살 내 가슴 속 어디쯤에 뜨거운 애국심이 숨어 있다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선을 넘고 질주하는 개 한 마리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을 때 마다 가족들과 나는 지구가 흔들릴 듯 목이 터지게 함성을
질렀다. 동물이 흉상 하체 근육들 험하게 리듬으로 움직였다. 정말 울먹이는 인간이 된다는 말을
TV 앞에서 추는 괴괴한 나의 춤은 신통한 응원의 기운을 발휘했다. 내가 춤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틈에 들어가 봤었다. 열등분 외가니 못했음. 어머니나 주인물 애저승길 갈까 세조 주한다

가을 장미 주인공 만만잔개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까 살아서 가더라도 죽을지
다른 나무들이 꽃피울 땐 뿌리위하지도 고개를 세우지도 않았다. 봉오리조차 세우지
않고 침착했다. 물라묵살당한 생명의 존엄성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픈 장면이 몇 가지 더 있을 까.

가을이 되면 내 눈 속으로 꽃볼 커 들고 오려고. 피눈물을 거스로 닦았다

가창 오리군 우리 엄마는 등으로 피눈물을 쏟는다. 우리 엄마는 어깨로 피눈물을 흘린다. 우리
망막이 타는 아픔을 겪고 날아왔을까 시베리아에서 이민 온 가창 오리들 우리나라가
가창 오리한테는 따뜻한 안방집이다. 엄마는 허리로 피눈물을 흘린다.

꽃과 농작물에 호미질을 너무 하여 엄마 등 날갯죽지가 탈이 나고 어깨며, 허리도 자주 탈이 나고

병원을 가다가다 지쳐서 집에서 쭉뚱을 하고, 사혈 침을 찔러 부항기로 피를 빼 내는
엄마

꽃 가꾸는 것도 발농사도 다 좋으나 나에겐 그 보다 엄마가 소중한데 피눈물이 거즈에 묻어나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

나는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퇴계 이황 선생과 류성룡 선생과 율곡 이이 선생과 이육사 시인과 윤동주 시인, 한용운 시인을 존경한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백 번을 물어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임금도 동료들도 아무도 인정 해 주지 않아도 나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진정한 애국자

나라 사랑이 없으면 실천 할 수 없고 장군을 쉽게 흉내 낼 사람이 지금도 없기 때문.

용수철

친구 이수철이는 성을 용으로 갈아야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 번만 살짝 건드려도 바로 욱 하고 튀어 오른다

인생이 뭔지를 아직 나는 몰라서 엄마의 충고 한 마디에 나도 용수철이 된다

용수철이 빠진 볼펜은 아무짝에도 못쓴다 우리 집이 볼펜이라면 나는 용수철이다

용수철 빠져나가면 볼펜도 폐품이 된다 나도 이제 그만 튀어 올라야겠다.

부도난 기도문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북쪽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 와 전라도 무등산 수박을 먹는 날이
올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 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먹는 날이
올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했다 수많은 시간을 기도 했다
그 많은 기도들은 다 부도가 났는가

그 많은 기도들은 어디로 세어 나가고 여전히 통일은 되지 못한 조국.

새벽에게 새벽이여 나를 더욱 깊게 하렴 깊은 사람이 되어 수줍은 갈대밭 그 뒷모습을
닮은 꿈 송이 피어나게 해 주렴

새벽이여 내 꿈 망울이 빛을 만나 캄캄한 어둠에서 걸어 나오고 세상을 자유로이
떠다니는 구름이 되고 빛이 되게 해 주렴

숨은 꿈은 꽃송이가 떨어져 가시가 없는 귀한 꽃이 피고 꽃대에서 이끼가 자랄 때쯤
다시금 붉어지고 붉어지며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해 주렴

새벽이여 새들이 둥지에서 빠져나가 날듯 천천히 그려진 내 작은 역사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어주렴 푸르고 싱그럽게 자라나도록.

친구의 장례식장

너는 살아서 말했지 가진 것 없어도 뜨거운 인생 열겠다고 그런 삶 열려면 열심히 제
몸을 녹이고 태우면 된다고 말했지

그래, 친구야 살아서 열정적으로 녹이고 태웠어야지 아직 성인식도 못한 고교생인데
제 몸 이렇게 죽어서 녹이고 태우다니

오토바이는 살아있는 목숨들을 순식간에 갈아 마시는 믹서라고 내가 그렇게 타지
말라고 말렸잖아 오늘 나뭇잎들조차 모두 파랗게 질려 있더라

너의 어머니는 장례식장에 한 쪽에 쓰러져 엎드려 절규했다 통곡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아니 부모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떠난 아이, 나쁜 놈아! 부디 잘 가라 가서 저 세상에서 못 다한 뜨거운 인생 열어라.

감정 드로잉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할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시간 다양한 나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여 보았다

부정적인 감정을 불사르고 긍정의 마음으로 디자인 한다

어머니의 수틀 속에서 한 땀씩 피어나던 소나무처럼 내 그림 속에서 싹이 돋는다 푸른 생명들이 용트림하고 별빛이 눈부시다.

여의도 벚꽃 길

여의도에 또 벚꽃이 병글었네 네가 있어서 저 꽃들이 병글었네 비바람이 며칠이나 뿌렸는데 하늘이 꽃잎을 붙잡고 있었네

네가 있으니 봄이 왔고 네가 있으니 꽃이 피고 네가 있으니 천국은 여의도에 있네 내 걸음으로 천국을 끌어 온 너

벚꽃 길을 너와 걸으면 하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살고 싶네 꽃의 소리가 들리고 하늘의 속삭임이 들리네 벚꽃 길을 걸으면 내가 하늘이 되고 너가 꽃이 되네. □ 서평
사랑의 씨앗을 나누는 행복한 시심

최 봉 희(시조시인, 글벗 편집주간)

농부는 흙에 씨를 뿌리고 시인은 사람의 가슴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의 씨앗이다. 종자는 신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다. - 신광순(종자와 시인박물관 관장) 이글은 경기도 연천 고문리에 위치한 ‘종자와시인박물관’ 에 벽에 걸린 액자에 담겨 있는 글이다. 이 글은 ‘종자와시인박물관’ 관장이신 신광순 시인의 철학이 담겨 있는 글이면서 씨앗과 문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삶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이자 원동력이란 의미다. 글말은 사람의 인격의 담겨진 씨앗이듯이 생명의 근원인 씨앗과 삶의 근원인 글말은 본디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글은 시인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송연화 시인은 한 마디로 ‘사랑의 씨앗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감성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시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는 송연화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 『뚝단배 인생』과 두 번째 시집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그의 시적 경향을 분석하고 표명한 바가 있다. 첫 번째 시집 『뚝단배 인생』에서는 ‘사랑의 아픔을 행복으로 빚은 시심’이라고 명시하면서 그 사랑은 ‘기다림’과 ‘축복’, 그리고 ‘신비로운 행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시집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그의 시적 경향과 특성을 ‘음성상징을 살린 체험적 풍경과 나눔의 행복’으로 밝힌 바 있다. 그의 시에는 체험에 우러난 시심을 음성상징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복한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시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시집 『나의 사랑, 나의 인생』은 어떤 경향을 담고 있을까? 한 마디로 시인의 시적 경향이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지금껏 그의 시의 특징은 사실적인 묘사와 진솔한 고백의 형식을 지닌 시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집의 경우, 간결한 시나 압축적인 시조의 형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그의 삶의 변화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한 개인적인 성장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순의 나이에 끊임없이 시를 배우려는 열정과 새로운 변화를 통한 자기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시 「내 고향 정선」과 최근에 발표한 시조 「내 고향」을 살펴보자.

충절의 효가 살아있는 아우라지 정선의 숨결 아리 아리 아라리요

저 강 건너 마을 왕래는 사공의 뱃놀이로 어기여차 어기여차

굽이굽이 내려오는 아리랑으로 흐르는 저리움은 너를 차게 삼킬 것들이 아리랑 고품을 최소화한
그명맥이어 유산지키고 대대손손 이어달리기 세계유산 등재하였다네 속으로 빠져든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신명나게 불러보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시 「내
고향선」 전문 황대산 절골짜기라네 사랑의 품중 두 사람이 섰다면 권선택하리라 꺼안되고
아리랑 노랫가락 입으로 전수되어 강도 건너보자 - 시 「사랑아, 내 사랑아」 일부

오늘 불러보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전문 아리랑은 성상장을 올릴 동적 모던기법을 속해한
수놓은 줄기꽃들인 울하 있다 독자들에게 감성월대 전달하고 감개무한 너의 성을
배울력을 알게 해주자 활용 생장어울택 있다. 농연채인 특행력이자 깨닌

해넘이 서쪽 하늘은 물이 올라 아름답다 - 시조 「저녁노을」 전문 그의 시적 경향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방식의 변화이고 삶의 틀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
시인으로서 변화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간결하고도 명확한 삶의 표현방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조형식의 선택이었다. 일반적으로 길게 늘어놓는
산문시에서 벗어나 간결한 시로 변화를 꾀한 것이다.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조 형식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라.
지금껏 그의 시의 특징은 사실적인 묘사와 진솔한 고백의 형식을 지닌 시에 머물고 있
었다. 그러나 이번 다섯 번째 시집의 경우, 간결한 시나 압축적인 시조의 형식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그의 삶의 변화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한 개인적인 성장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순의 나이에 끊임없이 시를 배우려는 열정과
새로운 변화를 통한 자기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가야 하는 삶의 형식의 변화일 수도 있다.
그에게는 적극적인 변신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로 가야할지 사방천지 꽃 축제로 요란스레 들썩이고 마음은 동구 밖을 벗어났지요
구름타고 어화둥둥 여행길 내 눈은 하염없이 빈 하늘만 쳐다보며 꽃 몸살이 오려나
봐요 - 시 「꽃 몸살」 일부

그는 신나는 마음을 ‘어화둥둥’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다. ‘어화둥둥’은 노래를 하면서
아기를 어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음성 상징어는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

좋아라, 신나라만 아닐진대 늘 밝음으로 가족들 챙기는 넉넉한 성격의 소유자 어화
둥둥 내 사랑 - 시 「내 사랑」 일부

그는 행복한 순간, 감동이 벅차오르는 순간에 음성 상징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들떠하고 아주 기분 좋을 때 사용하는 어휘인 ‘어울렁 어울렁’을 사
용하고 있다.

보라색깔의 고운 꽃 줄기 뻗어 하늘 향해 쪽쪽 오른다

줄기 새끼 꼬이듯 여러 형제들 어울렁 더울렁

새벽녘 이슬 머금고 따따따 나팔수 되어 단잠을 깨우네 - 시 「나팔꽃 사랑」 일부
이밖에도 송연화 시인이 의성어, 의태어, 첩어 의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사례를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살랑살랑, 사뿐사뿐, 낭창낭창(가는 막대기나 줄 따위가 조금 탄력 있게 자꾸 흔들리는
모양), 슬렁슬렁, 나풀나풀, 자박자박, 조곤조곤, 오르락내리락, 간질간질, 너랑 나랑, 알
록달록, 방실방실, 조롱조롱, 울컥울컥, 둥실둥실, 한 올 한 올, 꼬물꼬물, 웅성웅성, 무
럭무럭

이처럼 시인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음성 상징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음성상징어의 사용은 음성 상징어의 활용과 대조적 표현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낸 표현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을 돋보이게 한다. 시 작품은 추
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발상과 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추상적 개념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말 의태어와 의성어, 첩어를 절묘하게 구사하여 시인의 섬세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음성 상징어는 주로 소리, 동작 형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의 수단의 하나이다. 상징어는 국어에 특히 발달되어 있어서 음상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음성 상징어의 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는 생기 있게 살아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생동감’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기차가 달려간다.’ 보다는 ‘기차가 척척폭폭 달려간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생동감을 살려 주는 것이다. 둘째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문학에서의 분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미지인 심상은 분위기에 많은 기여를 한다. 의태어는 시각적 이미지, 의성어는 청각적인 이미지와 결부된다. 따라서 소리나 동작의 형태를 묘사하는 상징어는 감각적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다. 마치 ‘두근두근’이 설레거나 불안한 상황을 말한다면, ‘살금살금’은 뭔가 조심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음악성이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주로 같은 어휘가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살랑살랑, 사뿐사뿐, 조곤조곤, 간질간질, 알록달록 등은 운율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햇볕 쨍쨍 맑고 청명한 날 우수수 꽃비 내린다 나풀나풀 나비처럼 사뿐사뿐 곱게 앉는다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하얀 용단을 깔아놓은